

만성 류마티즘염 고통 벌침요법 봉독효과 굿

정승기 정형외과 전문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진통소염제 및 항류머티즘제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병 자체 못지않은 고역이다. 이 때문에 속(위장)을 버리기 일쑤고, 흔히 얼굴이 부어 있으며, 관절도 굳어져 운동에 제한을 받는다.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 때문에 상당수 환자에서 만성위궤양이 생겨, 속이 쓰리고 아파 나중에는 약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된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관절 주위의 활막에서 염증이 시작되어 활막염에서 연골까지 파괴되는 자가 면역질환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완치법이 없다. 따라서 염증현상을 억제하여 관절이나 근육, 건 등의 파괴속도를 늦추고 기능소실을 최소화하는 정도이다 보니 환자는 장기간 관절통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얼마전 병원을 찾은 56세 여성환자 역시 20여년간 이 같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환자에게 단순히 류머티즘 약을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대체요법의 하나인 봉독요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의 통증이 현저히 감소해 약제도 최소한으로 복용하면서 삶의 질도 개선되는 등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봉독요법은 꿀벌의 산란관에서 나오는 독액 중에서 인체에 무해한 성분만을 추출해 통증부위에 주입하는 치료다. 우선 인체 내의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면역기능을 획기적으로 조절해 준다. 또 체내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뇌하수체 전엽과 부신피질을 자극해 코티솔이라는 자연스러운 진통, 진정제를 체내에서 생성시켜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든다. 특히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는 봉독 성분이 척추나 관절의 신경이나 근막, 인대 등의 염증세포를 직접 공격해 염증을 치료한다. 신경계의 흥분작용으로 신경장애와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봉독요법은 면역계 이상으로 흔히 발생하는 류머티즘 관절염뿐만 아니라 신경통, 다발성 경화증, 통풍성 관절염, 만성요통, 강직성 척추염, 건선 관절염, 근막 동통 증후군 등 점차 임상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봉독요법은 일단 1주일에 2회 실시하고, 체질이나 질환에 따라 그 농도를 조절하며, 보통 15회 정도가 한번의 치료과정이다. 만성질환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봉독 농도를 높여 추가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봉독요법은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만성통증 등을 현대 의학적 치료로 실패했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환자의 상태가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큰 부작용없이 시행할 수 있는 좋은 대체치료법이 될 수 있다.